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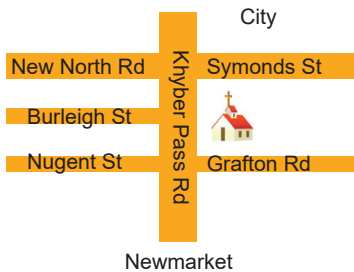
갈보리소식

1. 2016년 남은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나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2. 각 선교회 총회를 12월 11일(주일)에 실시할 예정이니 기도와 관심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점심 식사로 섬겨 주신 바누아투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4. 뉴질랜드 청년 코스타(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25일(금) 장소: 해밀튼 와이카토 대학
5. 자선단체 후원 및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오uckland 오라토리오 코랄 합창단의 제2회 헨델의 메시아 공연이 있습니다. 입장료 일반 \$30 VIP \$100 (문의: 정혜숙권사) 일시: 2016년 11월 26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 파넬 대성당(Cnr St. Stephens Ave.)
6. 갈보리 성경릴레이 19번째로 4남선교회가 완독하였습니다.
7.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8. 이태한 담임목사는 안식일을 갖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전교인 성경통독 릴레이: 19회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동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 태 한
- 부 목 사 : 심 창 진
- 부 목 사 : 이 성 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18권 46호
2016년 11월 13일 주일

2016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심창진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57:7-11

◎ **찬 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대표기도 고성일 장로

성경봉독 요한 1서 3:13-24

찬양대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심창진 목사

찬 송 소원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심창진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성구 암송과 나눔

기도 / 김민한 형제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최득수 집사

성경봉독 느헤미야
8:1-18

설교 말씀 앞으로
이성철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부흥

주기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 온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감사의 기도제목만을 나누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 돌아볼 수 있도록
2.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공간들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3. NZ 교회들이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며, 기도를 통해 연합할 수 있도록

목회 컬럼

‘노래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목사로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이 때에 세상은 그러한 흐름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면 옛 가죽 부대는 찢겨지고 터져 버리고 말텐데... 세상과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전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대학 시절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랑의 사도이자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날마다 읽기로 작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수록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사랑은 제가 그 동안 알고 있었던 사랑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물론 요한은 우리가 그 동안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랑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에 아파하고, 때론 절망할 수 밖에 없음이 무겁게 다가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잠시 돌아보는 자리에 서서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사도 요한의 음성은 사랑은 삶을 노래하는 것이고, 삶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 (storyteller)의 모습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껍이나 감격스러웠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폭 젖어 사는 이들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경험이었습니다.

목사로서 길을 걷고 있기에 배우는 것들 너무 많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겨지는 것이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과 감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목사로 사는 길을 찾아가겠지만 노래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미소 지어 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1월 교회일지

금요일저녁기도회: 11월 11일(금요일) 예 배 안 내: 손조훈/박정은
대림절 1: 11월 27일(주일)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선교회주관예배: 11월 30일 최희숙
(수요일)

11월 예배봉사자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한상순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이지수 자매
11월 23일 수요: 한상순 집사
11월 23일 애찬: 한누리 집사
11월 27일 주일: 박병민 장로
11월 27일 청년부: 이예은 자매